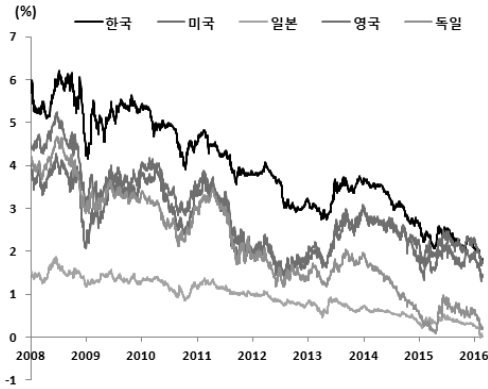


# I. 검토배경

- 향후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제도는 국제적 정합성 측면<sup>1)</sup>에서 보험부채 시가 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.
  - 현행 국내 지급여력평가는 보험부채 원가평가에 기초한 RBC(Risk Based Capital) 제도를 바탕으로 함.
  - 향후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 도입에 맞춰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신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함.
  
-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,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부채 가치 증가로 인한 자본 감소로 RBC 비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음.
  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여 저금리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음(그림 I-1 참고).
    - 2016년 2월 말 기준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.8%대 수준
  - 국내 보험회사(특히, 생명보험)는 금리 하락 시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장기 상품으로 인해 이차역마진이 확대됨.
    - 2015년 6월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고금리 확정형 계약(5% 이상)의 비중은 30.8%임(표 I-1 참고).
  -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미래 예상 손실이 자본 감소로 이어지고, 이로 인해 RBC 비율이 급락할 수 있음.

1)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세부 내용은 <부록 1> 참조.

그림 1-1 주요국 국채 금리



주: 만기 10년.  
자료: 연합인포맥스.

표 1-1 적립이율 및 운용자산이익률

구분	보험료적립금		운용 자산 이익률	금리차
	비중	적립 이율		
생보사	확정형 (5.0%↑)	43.3 30.8	6.4	
	연동형	56.7	3.7	
	전체	100	4.8	4.4 -0.4
손보사	확정형 (5.0%↑)	6.9 2.7	5.4	
	연동형	93.1	3.5	
	전체	100	3.6	4.1 0.5
전체			4.6	4.3 -0.3

주: 2015년 6월 말 기준.  
자료: 금융감독원.

■ 따라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제도로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시행시기 및 방법 조정뿐만 아니라 경과조치도 필요한데, EU Solvency II가 좋은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보임.

- EU Solvency II는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를 기초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함.
-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친 계량영향평가(QIS; Quantitative Impact Study)를 바탕으로 EU Solvency II는 시행시기 및 방법 조정뿐만 아니라 경과조치(transitional measure)를 도입함.

■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에서는 EU Solvency II의 연착륙 장치 중 하나인 경과조치를 살펴보고, 이를 통해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